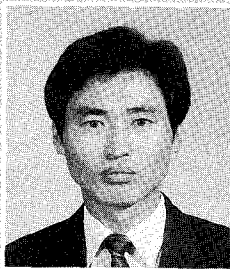


# 산란계 육성기 관리와 올바른 부리자르기 방법



송 봉 순  
(태영농원 이사)

산란계를 사육하는 최고의 목표는 품질이 우수한 양질의 계란을 생산하기 위함이다.

계란을 생산하는 데는 닭의 유전적인 능력 외에 영양 환경조건 사양관리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요인이다.

산란계 계군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성숙 시기의 체중 및 균일도가 우수한 계군으로 육성되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 장에서는 육성기 사양관리 포인트 및 부리 자르기(DEBEAKING)의 장점에 대하여 논고하고자 한다.

## 1. 육성기 사양관리

산란 5%시 목표체중은 1,600g이다.

시산시 우수한 균일도 및 목표 체중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4주령에 크게 체격이 형성되어 목표 체중 290~300g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사양관리 포인트를 제안 하고자 한다.

1) 계군의 사육 밀도 급이기 및 급수 공간을 충분히 제공한다.

- 평사 : 1주령 : 40수/㎡ 2주령 : 30수/㎡  
3주령 : 20수/㎡ 18주이상 : 7수/㎡
- 케이지 : 1~2주령 : 50수/㎡  
3~4주령 : 40수/㎡ 18주이상 : 22수/㎡

2) 입추시에는 점등시간 및 점등 강도(30~40LUX)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가 1주령 이후부터 점등 강도 및 점등 시간을 줄이는 점감 점등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 유창 계사 점등시간은 최초 23시간부터 시산 시기와 자연일조 시간까지.

· 무창 계사 점등시간은 최초 23시간부터 최소 9시간까지 할 수 있다.

점등 강도 또한 30~40LUX에서 최소 2~3LUX까지 줄일 수 있다.

3) 입추시부터 적어도 3~4주간은 양질의 초

이사료 (단백질 21% 이상, 에너지 3,000 kcal 이상)를 급여 하여 우수한 체격이 형성되도록 한다.

4) 계란 생산시기에 피크생산 및 체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육성시기에 소화기관 발달 및 식욕 촉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루



사료보다는 알갱이 입자 사료 급여 및 육성기간중 2~3회 왕모래(3~4mm) 급여를 권고한다.

5) 육성계군이 영양소 불균형 섭취 및 식욕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5주령 부터는 매일 낮에 1~2시간 정도는 굶이기가 완전히 비울 수 있도록 급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6) 육성 기간중 최소한 2주령 목표 체중 200g, 4주령 300g, 10주령 850g, 16주령 1,400g, 18주령 1,530g~1,600g의 목표 체중에 도달하였는지 체중을 체크하여 초생추 사료, 중병아리 사료, 예비산란 사료 및 산란 사료의 변경 시기를 결정한다.

7) 육성계군의 평균 체중이 1,450g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점등 자극을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육성된 계군의 품질 우수성은 다음의 6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된다.

① 성성숙 시기의 체중

② 사료섭취 능력

③ 디비킹 상태

④ 계군의 균일도

⑤ 건강상태

⑥ 성성숙 일령

## 2. 디비킹 (DEBEAKING)

닭을 사육함에 있어 부리 자르기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행하여지는데 첫째로는 우모쪼기와 카니발리즘을 방지하여 산란시 생존율을 향상시키므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요, 둘째로는 사료 허실을 줄이며 사료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세계적으로는 동물 복지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여 부리 자르기를 규제하는 국가도 있지만 이는 계군의 사육 밀도 및 계사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부합 될 수 있는 상황이 충족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우리 나라와 같이 고밀도 사육 및 환경 조건 계사 구조 여건 하에 사육한다면 부리 자르기를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생산성 및 생존율 향상 등으로 경제적 이득이 올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부리 자르기는 반드시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이는 정교한 작업으로서 정확하게 실시해야만 한다.

### 1) 부리 자르기 시기는 ?

무침계사 : 8~10일령에 실시한다.

유침계사 및 평사 : 8~10령에 실시하는 부리 자르기만으로는 우모쪼기 및 카니발리즘을 완전히 방지하지 못할 것이며 이 일령에 너무 강하게 부리 자르기를 하면 성장률과 균일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8~10일령에는 부리 윗부분의 성장점까지만 약하게 자르고 8~10 주령에 2차 부리 자르기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2) 부리 자르기 작업

① 부리 자르기 작업은 건강한 닭에서만 실시하고 출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수에 비타민 K를 첨가하여 급이 하고 디비커 날의 적당한 온도는 650~750℃이다.

② 위 부리와 아래 부리가 서로 다르게 자라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아리의 부리를 위로 15° 기울여 절단하고 부리 양끝을 돌려주어 각을 없애준다.

③ 8~10주령시 2차 디비킹은 부리의 장축에 직각으로 잘라내야 하며 지진 후에는 부리 끝과 콧구멍 사이의 부리 길이의 약 절반이 남아있어야 한다.

④ 부리 자르기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위 부리와 아래 부리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부리 자르기를 한 후 위 아래 부리를 따로 자르고 지진 후 부리 양끝을 둥글게 만들어 다시 자라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때 디



약 10일령 시

평사 산란방식 또는 계방계사의 케이지 산란방식의 경우에 8~10주령시에 2차 디비킹을 한 암탉

<그림> 올바르게 디비킹이 이루어진 부리의 예

비커 날의 적정 온도는 800~850℃이다.

### 3) 부리 자르기 후

- ① 병아리들이 물을 마시기 쉽게 만들어 줄 것.
- ② 사료를 충분히 주어 길이가 적당하게 할 것.
- ③ 부리 자르기 후 1주일은 굵이기를 비우지 말 것.

### 3. 결론

· 무창계사 사육 시스템에서는 1차 부리 자르기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빛의 조도를(육성 기간에는 2~3LUX 산란기간에는 5~10 LUX) 충분히 낮추어 사육하면 카니발리즘

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으며 사료 허실을 예방하여 생산성 향상 및 사료 효율이 향상 될 것이다.

· 유창계사 및 평사 사육 시스템에서는 1차 부리 자르기를 8~10일령에 정확하게 실시 하고 8~10주령에 2차 부리 자르기를 위그림과 같이 강하게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며 만약 농장 여건상 불가능 할 시에는 계사 내에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광망 설치 및 수당 활동 면적을 충분히 제공하면(평사 : 20수이내/㎡, 케이지 : 450㎤이상) 우모 쪼기 및 카니발리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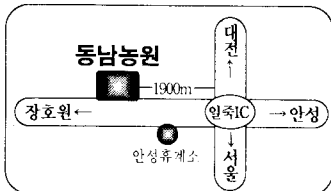
# 특수 위탁 전문 부화장

## ◆ 가금류 오리류 관상조류 부화 및 위탁 부화전문

육계, 삼계, 개량 토종닭, 재래 토종닭, 오골계, 옥계, 회피, 투계, 짜보, 청둥오리, 백오리, 칠며조, 메추리, 기러기, 비둘기, 꿩, 자고, 화초 닭, 호로조, 백한, 거위, 은계, 금계, 공작, 원앙, 등 ----- ( 취미, 부업, 전업, 사육상담 환영 )

————— 가금류, 오리류, 희귀조류, 부화, 분양, 유통, 알선, 위탁판매 —————

\*\*\*\*\*



## 동남농원 • 부화장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478번지  
 전 화 : (031)672-0088, 휴대 폰 : 011-307-7208  
 농 협 : 237020-52-019626 예금주 : 윤 용 구  
 우 체 국 : 101634-0021930 예금주 : 윤 용 구